



**선제적 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보건**

HYUNDAI TRANSYS

현대트랜시스 안전보건팀

현대트랜시스는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장의 안전을 설계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살피는 이들의 꾸준한 노력이, 결국 '글로벌 무재해 달성'이라는 목표를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글 김효정 사진 안종근

스마트 기술로 예측하고, 현장 중심으로 예방한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는 자동차 핵심 부품인 파워트레인과 시트를 생산하며,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구동시스템 등 다양한 구동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특히 자동변속기(AT), 수동변속기(MT), 듀얼클러치변속기(DCT), 무단변속기(CVT)까지 전 라인업을 모두 보유한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현재 11개국 33개 사업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과 글로벌 제조 역량의 중심에는 체계적인 안전문화 관리 시스템이 자리한다. 현대트랜시스는 '안전 최우선 경영'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조직문화에 내재화해 무재해·친환경·건강한 사업장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임직원들은 "안전은 기술의 전제



이고, 건강은 품질의 시작"이라는 믿음으로 하루의 업무를 시작한다. 안전보건팀 박준규 팀장은 "노동자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작업하고 귀가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직원 건강증진 활동 추진, 잠재적 건강 리스크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트랜시스 안전보건팀이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는 '현장 중심의 예방'이다. 생산현장은 스마트팩토리 기술과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가 결합하며 한층 진화하고 있다. AI 기반 CCTV, 지게차 감지 센서, 위험구역 인터록(Interlock) 장치 등 첨단 기술이 도입돼 작업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감지·모니터링한다.

김형업 책임은 "지곡공장은 물류차와 지게차 작업이 많아 고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자칫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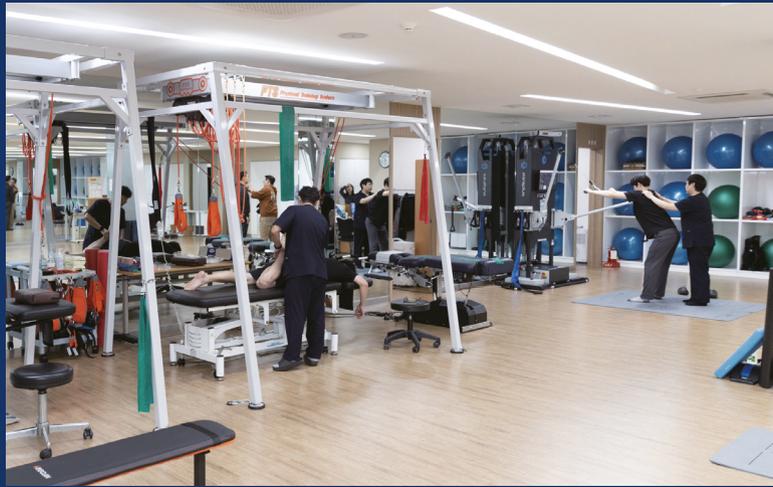
현장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는 중앙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돼 작업별 위험도 분석과 사고 가능성 예측에 활용된다. 박래성 매니저는

“사고나 직업병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키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점검을 넘어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에 따라 ‘측정-평가-개선-교육’의 구조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안전보건팀은 정기적으로 위험요인을 측정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며, 이를 현장 구성원에게 교육과 피드백으로 다시 전달한다. 이러한 반복적 순환 과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전 사업장에 동일한 수준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스마트 안전장치, 기술기업의 경쟁력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의 확산으로 모빌리티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마트 안전장치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적극 도입해 지속 가능한 생산환경을 구축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잠재 위험 발굴 시스템을 통해 노동자의 사고 예방이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박준규 팀장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 분야에 전용 예산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며 “매주 대표이사, CSO, 안전실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 위험 요소를 살피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작업 중 발생하는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고 피로도를 완화하기 위한 웨어러블 장비 도입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테스트 단계로, 실제 공정에서 노동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에 있다. 또한, 유해물질 포집장치 개선, 화학물질 관리체계 고도화 등 환경 안전 분야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 공정에서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고려하겠다는 현대트랜시스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현대트랜시스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내 산업보건센터, 공사안전교육장, 안전홍보 Zone 등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안전·보건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안전보건팀이 직접 제작하는 안전보건 인터뷰 및 교육 영상 콘텐츠다. 직원 참여형 인터뷰와 퀴즈, 작업현장 맞춤형 안전수칙 영상을 제작해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임직원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핵심 과제로 삼고, 통증을 호소하는 직원에게 개별 집중 상담을 제공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박래성 매니저는 “2010년부터 대전대학교 물리치료학과와 협력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 상담과 개인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취약 부위를 평가하고 개선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음 건강 관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임직원과 직계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해피민트 서비스’는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정서 문제, 가족 갈등 등 다양한 심리적 이슈를 다루는 상담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찾아오는 방문 심리상담소’, ‘생명지킴이 교육’, ‘마음챙김·평온한 삶 교육’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성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 2024년에는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스스로 지키는 안전,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

현대트랜시스는 대한산업보건협회와도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안전보건 수준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박래성 매니저는 최근 시행한 밀폐공간 위험도 평가 컨설팅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사업장 내 주요 밀폐 공간인 탱크, 피트, 폐수처리조, 도장 부스 등을 직접 방문해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위험도 평가와 등급화를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관리 역량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이후 현대트랜시스는 밀폐공간 등급별 진입 절차를 재정비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했으며, 교육 및 구조 훈련을 정례화해 밀폐공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박준규 팀장은 “스마트 기술과 ESG 경영을 결합한 선진형 안전보건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보건팀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며 “스마트 위험감시 시스템의 확대를 통해 스마트 안전경영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율 참여형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또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부 안전 시스템과 작업 지침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 나갈 때 비로소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트랜시스 임직원 모두는 단순히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안전 시스템은 현장의 사고를 막기 위한 마지막 장치가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시작되는 지점이어야 한다. 건강한 노동자만이 안정적인 생산을 이룰 수 있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드는 일이 곧 무결점 제품과 품질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현대트랜시스는 오늘도 기술과 안전, 두 축을 함께 굴리며 무재해 글로벌 사업장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

“ 스스로 안전을 만들어 가는 시대 ”

현대트랜시스 안전환경실

김 세 열

실장



Mini Interview

현대트랜시스 안전환경실은 안전기획팀, 안전보건팀, 환경방재팀으로 구성된 전문 조직으로, 더 세분화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역할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 모든 구성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회사는 설비 개선과 적극적인 투자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설비 중심의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 안전’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생활 안전은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작업 전 점검, 보호구 착용, 동료의 위험 행동 살피기 같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며, 모든 구성원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고,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문화가 자리잡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무재해, 친환경, 건강한 사업장’이 실현될 것입니다.